현불 논단

이념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한국전쟁은 민족적 비극
분단의식 고착화 시발점
이념 논의는 사고 위축 시켜

문화의 오류에 집착하는 현상
이념의 노예 사회에 양산해

부처님 '용어 탈피' 사사
열린 마음으로 열린 사회 구성
평화공동체 형성의 역할 다하자

우리 땅 한반도가 큰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청소년 시절에 어느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공포와 어지러움 그리고 스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모습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과 비슷하다. 이 글이 지면에 실릴 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의 격랑 속에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새롭게 다가온다.

고래로 같은 민족이 칼끝을 마주하고 대치한다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는 그려질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식민지 통치하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과 억압을 공유하였고, 그만큼 해방의 기쁨도 컸으리라. 그러나 곧 한반도는 냉전적 국제정치의 이념적 대결장으로 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나아가 한국전쟁이라는 우리 땅 전체가 전쟁터가 되는 민족적 비극을 겪었다. 이와 함께 분단의식의 고착화는 견고해졌고 우리 모두는 이념의 족쇄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70년의 틀에서 벗어나는 민족사적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쩌랴. 민족사적 전기의 매듭을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민족 공동체 구성원의 내공(內攻)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공을 기르는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이데올로기적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이념 논의는 정신병리적이라 할 만큼 우리의 사고지평을 위축시켜 왔고 그만큼 파행적이었다. 지금 남북정상이 만나고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남남갈등의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주변의 사람들과 남북평화를 주제로 대화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다. 이 모두가 이념의 문제에서 나온다. 이념으로 분단되고, 이념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인의 정치적 삶은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념은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라는 양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칼과 같다. 어머니가 칼을 들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내고 강도가 들면 큰 흉기로 변한다. 인류 역사상 이데올로기가 큰 흉기로 등장한 예는 너무도 많다.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정신줄을 잠깐 놓치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 함정의 제일 큰 요인이 바로 언어와 실재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는 많은 용어가 동원되고 이 용어로 현실을 진단하고 분석한다. 이를 물화(物化)의 오류라고 부른다. 현실을 추상화시킨 것이 용어인데 이 용어의 안경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현실에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사람을 자극하고 동원하고 있는가. 이념은 인간 삶에 있어 하나의 도구다. 그런데 이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어이하랴.

붓다가 열반에 드실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연꽃의 의미를 가섭이 미소로서 화답한 '염화시중'을 상기하면 이제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용어에서 해탈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코 무슨 주의니 하는 용어로 현실을 진단할 수 없고 인간과 사회의 미래를 처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용어에 속박되어 왔다.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내공은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갖도록 여러 영역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은 바로 평화로운 열린사회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이 통일문화 창조의 핵심이다. 일찍이 칼 포퍼K. Popper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저서에서 열린사회의 적으로서 닫힌 이념체계를 비판하면서 '열린 마음'을 강조한다. 아 그렇다. 열린 마음은 바로 '연기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연기적 마음은 타자와 함께하는 상호관계의 가치이다. 남북의 평화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불교의 사명과 불교도의 역할이 새삼 자명해 진다.

特別기고

종단 정상화에 발 벗고 나서라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조계종과 소속 승려들이 시궁창에 처 박혔다. MBC TV의 〈PD수첩〉은 2회에 걸쳐서 조계종 총무원장 등 중진 스님 6명에 대해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을 방송했다. 만일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계종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당해 스님들과 소속 기관은 모함이며 사실무근의 허위방송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관련 스님들은 즉시 합동으로 검찰에 MBC TV와 대표자 그리고 담당자 전원을 형사고소 및 민사상 보상을 청구하고 당장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들의 무고함과 MBC TV와 〈PD수첩〉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려야 마땅하다.

현실 상황에서 관련된 스님들은 타인을 시켜서 대변하거나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방송내용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불조와 대중에게 참회하고 즉각 현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등 속죄해야 마땅하다.

특히 제2회 방송은 현직 원로의원까지 거론 되었는 바 사실이 아니라면 원로회의는 즉시 명예회복에 나서야 하며,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원로회의는 즉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해당 원로스님은 사직하고 참회해야 마땅하다.

묻노니, 종단이 이 지경이 된 현실에서 누가 먼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원로회의와 중앙종회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관련자들을 청문하는 등 조사를 해서 무고하다면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죄가 있다면 강력한 징치를 통해서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절대로 시간을 끌거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현 종단 사태를 원로회의와 중앙종회가 지속해서 외면한다면 스스로 직분을 망각함이다. 만일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원로회의와 중앙종회가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진 해산하거나 종도들이 해산시켜야 마땅하다.

종헌에 "종도 대중은 민족통일과 문명사의 새로운 흐름에 대비하고 종헌의 큰 뜻을 받들어 실천하여 이 땅의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하라" 했다. 과연 오늘의 현실에서 조계종과 종도들이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할 수 있는가?

조계종의 원로회의,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 수뇌들, 그리고 중앙종회는 종단을 이끌어 가는 고위직으로서 조계종 공직의 핵심을 구성하며 종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건강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가 이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이다. 그러나 종단을 이끌어간다는 고위급 승려들이 집단적으로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니, 수행과 포교에 열중하는 대다수 대중 및 불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었고, 한국불교 대표 종단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은 진즉에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원로회의와 중앙종회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장 회의를 소집해서 종단을 정상화시키고 안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社說

불교무형문화재 복원 이어지길

진각종이 신라시대 밀교의식인 문두루비법을 복원하겠다고 나섰다. 2016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한국밀교총람〉 발간 사업의 일부로 나당전쟁 당시 당나라 군사를 물리쳤다는 의식 복원에 나선 것이다. 문두루법은 나당전쟁 당시 통일신라의 여러 지역 백성들이 불교의식을 통해 하나로 뭉친 것을 의미한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수륙재와 영산재 같은 무형유산의 복원 및 문화재 지정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전체 220여 무형문화재 중 불교무형문화재는 5종 7건만이 지정됐을 뿐이다. 유형문화재의 약 40%가 불교문화재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미약한 수준이다.

불교무형문화재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승의 맥이 단절됐다. 사찰의 많은 의례와 의식, 풍속들이 사라졌다.

불교무형유산은 사찰 등 유형유산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민족의 정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무형유산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교무형유산은 1700년 역사 속에 민족의 사상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진각종의 문두루법 복원 추진은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불교무형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서울 봉은사의 생전예수재, 천태종의 삼회향놀이, 월정사의 탑돌이 등 무형유산이 많다.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려면 이들 무형유산이 지닌 공동체성에 대한 주목과 대중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불교의 기반에 들어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주목과 함께 의례와 의식 등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일기를 기원한다.

어린이 영어지도자 네트워크 필요하다

지역의 한 교구본사에서 2013년 야심차게 추진한 영어어린이법회,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법회는 사라졌다. 그 이유는 영어에 능통한 지도법사가 보직을 바꾸며 후임을 찾지 못하면서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불어온 영어조기교육의 열기는 불교계에까지 미쳤다. 영어법회를 비롯해 영문자타카암송대회 등 프로그램과 행사가 생겨났다. 불교영어도서관이 건립되고 각종 영어 서적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어린이영어포교의 현장은 최근에서야 불붙는 모양새다. 현장에서는 이를 지도하는 지도법사들에 대한 재교육 및 네트워킹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종립대에서 영어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사찰에서는 영어 지도가 가능한 수준까지의 스님들을 찾기란 어렵다.

이런 와중에 일부 사찰에서는 영어교사 및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원어민들을 활용해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에 능통한 스님을 찾기 보다 주변에서 불교에 관심있는 재가자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이'라는 말이 있다. 바늘과 실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활용도가 급감한다. 불교계는 이들 지도자에 대한 네트워킹을 해야 할 때다. 불교계 영어지도법사들이 필요한 사찰에 제대로 결합될 때 어린이영어포교 또한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어지도법사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의 종단 차원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시대는 변화했다. 단순히 신심에만 기대 사찰로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영어교육과 함께 발전하는 어린이 포교의 모습을 그려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